

고토 열도에 형성된 잠복 기리시탄의 취락

1630년대부터 바스찬이라는 일본인 전도사의 예언이 나가사키 소토메 지방 전역으로 퍼졌다. 바스찬의 예언 중에는 ‘7세대가 지나면 신부가 나타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밖에도 신부가 없을 경우, 고해에 관한 안내서나 구약성경에 대한 교리서인 『천지시지사(天地始之事)』의 내용이 구전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전통은 그리스도교와 일본 문화 사이에서 발전한 공생 관계, 나아가 일부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대를 이어 계승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18세기 말, 오무라 번 소토메 지방의 농민들은 고토 번의 요청에 따라 고토 열도로 이주했다. 이주했던 농민들의 대부분이 잠복 기리시탄이었고, 이에 따라 『천지시지사(天地始之事)』도 함께 고토 열도로 전해졌다. 가족 단위로 이주한 사람들은 협소한 산비탈을 개간하여 고토 열도의 각지에서 잠복 기리시탄의 취락을 형성했다.

그리스도교가 전래된 초기, 선교사로부터 상세한 지도를 받았던 나가사키 지방의 잠복 기리시탄들에게는 조직적으로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삽화: 쇼지 요시타카)

연표

1797 소토메 지방에서 낙도로 이주가 시작
됨